



미리 알면 동물 수명주기 따라 관리에 도움



반려동물 '기대 수명' 바로 알기

의학 발달 등 영향 개·고양이 12~15년 햄스터 등 소형 포유류 비교적 짧은 편 도마뱀 15년 내외... 앵무새 최장 70년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3세 (남성 80.3세, 여성 86.3세)이다. 기대 수명이란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수치화한 것으로, 개인의 나이에 따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지표이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의 기대 수명은 어떨까? 반려동물들의 기대 수명은 여러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물의 종에 따라 편차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 수명을 미리 알고 있다면 동물의 수명 주기에 따라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반려동물의 기대 수명에 대해 알아본다.

1. 개와 고양이의 기대 수명

반려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의 기대 수명은 약 12~15년 내외이다. 30~40년 전에는 개와 고양이의 기대 수명이 5년 내외에 불과했으나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기대 수명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됐다.

개의 경우 소형견 및 대형견 등 품종에 따라 몸무게 차이가 큰 편이며 (대표적인 소형견인 몰티즈 종은 평균 몸무게 약 2~3kg, 대형견인 리트리버의 몸무게는 약 25~35kg), 평균적으로 대형견의 기대 수명이 소형견보다 다소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양이의 경우 개와 달리 품종 간 몸무게 격차가 크지 않으며 일부 유전병이 있는 품종을 제외하면 평균 수명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편이다.

2. 소형 포유동물의 기대 수명

햄스터 등 소형 포유동물의 기대 수명은 중·대형 포유류에 비해 짧은 편이다. 햄스터의 기대 수명은 약 2년 내외이다. 사람의 수명과 단순 비교하면 햄스터의 시간은 사람에 비해 약 40배 빠르게 흐르는 셈이다. 즉 생애 주기상 햄스터가 보내는 1주일의 시간은 사람의 8개월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소형 포유류의 고슴도치의 기대 수명은 약 5년 내외, 페릿과 기니피그의 기대 수명은 약 6년 내외이다.

3. 파충류의 기대 수명

적절한 생활 환경 조건이 제공된다면 파충류의 기대 수명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육상 반려 도마뱀 중 가장 대표적인 표범 도마뱀 불이(레오파드 게코)의 기대 수명은 약 10~20년 사이이다. 역시 반려동물로 인기가 많은 턱수염 도마뱀(비어디드 드래곤), 이구아나의 기대 수명은 약 15년 내외이다.

거북류는 이전부터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 반수생 거북이인 쿠터 거북이의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이며, 육지거북이의 경우 적절한 사육환경에서 5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4. 조류(앵무새)의 기대 수명

알맞은 생활환경이 제공되고 위험한 전염병들을 피한다면 조류의 기대 수명은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반려조로 인기가 높으며 몸무게 100g 내외의 중 소형 앵무인 코뉴어의 기대 수명은 15~20년 내외이다. 앵무새 종은 소형 앵무보다는 중형·대형 앵무의 기대 수명이 긴 특징이 있다. 중형 앵무(몸무게 약 400g 내외)인 아마존 앵무의 기대 수명은 40~70년 내외이고, 대형 앵무(몸무게 약 1kg 내외)에 속하는 금강 앵무의 기대 수명은 30~50년 내외이다.



김 윤 기 제주동물병원장

영화관

가족 시네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은 참이다. 무더위가 물러가고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는 계절에 찾아오는 명절은 풍요롭고 아름답다. 이 좋은 계절에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다. 예전과는 다르게 서로가 더 멀리, 더 많이 떨어져 살고 있는 시대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모이기 힘든 시대라 가족이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애뜻한 마음이 든다.

이번 추석 연휴, 우리 가족의 며칠간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웃을 이틀 하고 조금도 지치지 않는 조카들의 뽀박질을 어른들은 흐뭇하게 지켜봤다. 집 안과 밖을 바쁘게 넘나들며 가을의 조각들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린이들의 움직임이 가을의 풍경과 근사하게 어우러지며 핸드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는 순간마다 그림이 됐다. 노년이지만 낯선 가족의 그림을 카메라에 담았다. 어느덧 훌쩍 자라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큰 조카가 할아버지와 함께 코스모스를 보여 함께 걷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황금빛 태양이 하늘을 코스모스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호흡으로 풍경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몇 장 찍다 멈춘 채 멍하니 들을 바라봤다.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저 작은 꼬마는, 언제 저렇게 나이를 드신 걸까 우리 아빠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꽤 큰 일렁임이 일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많은 영화들은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걸어도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가족'까지 그의 영화들은 가족이라는 자치만 거대한 집단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풍경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아버지와 조카가 함께 걷던 풍경을 마음에 담은 나는 마음에 담고 있던 고레에다의 영화 중 한 편을 꺼내어 다시 봤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장편이 또렷한 영화다. 사려 깊고 조심스럽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건넨다.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따뜻한 음성 안에 오래 고민한 질문을 건네는 그의 영화는 다시 봐도 몽글하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이미 기른 지 6년이 지난 아들이 병원에서 다른 아이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두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출생의 비밀을 빌미로 신파라는 난파선에 인물들을 태우지 않는다. 다만 일어나 버린 사건 후에 찾아온 지나쳐버린 시간들을 지금의 순간들 위에 천천히 포개어 놓는다. 낡은 정과 기른 정이라는 말로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가족들의 하루하루에 더해지고 알지 못했던 사실보다 더 크게, 알아차리지 못했던 마음의 표정들이 새로운 파도를 만들어낸다.

평생 가장 가까이 있지만 일부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이라는 존재, 어쩌면 존재감이 너무 커서 더 세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는 관계인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몇 장 찍다 멈춘 채 멍하니 들을 바라봤다. 언제 저렇게 자랐을까 저 작은 꼬마는, 언제 저렇게 나이를 드신 걸까 우리 아빠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꽤 큰 일렁임이 일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많은 영화들은 가족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걸어도 걸어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가족'까지 그의 영화들은 가족이라는 자치만 거대한 집단의 안과 밖을 넘나들며 풍경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아버지와 조카가 함께 걷던 풍경을 마음에 담은 나는 마음에 담고 있던 고레에다의 영화 중 한 편을 꺼내어 다시 봤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장편이 또렷한 영화다. 사려 깊고 조심스럽지만 머뭇거리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건넨다.

<신명현 독립영화스튜디오무브먼트 대표>

축 임
CONGRATULATIONS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장

임 경 춘
더러초 29회, 신임중 9회, 제주여고 33회,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UCSF) 박사
(부 : 임인봉-하가리, 모 : 송방심-김성리)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국제보청기 직원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장

임 경 춘
제주여고 33회, 서울대학교 학사·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 Francisco(UCSF) 박사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주여지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 순 신 외 동문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시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

강 영 배

20여년 이상을 제주농·축협 이사로 역임하시면서 제주농업 발전에 기여해오시다가 금번 제주시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 당선 및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봉개동 장애인지원협의회
회장 김 정 배 외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대 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01' 품질인증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0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취지사 732-5552